

이재명 '호남대전' 승리 최고위원은 민형배 1위

민주당 광주·전남·전북 전당대회
이재명 누적 득표율 86.97%
민형배 최고위원 5위로 도약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 의원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호남 대전'에서도 승리하면서 독주 체제를 굳히며 '확대명' (확실히 대표)을 이룩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광주·전남 유일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도 '덧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전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관련기사 3면> 또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 국회의원이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꺾고 승리했다. 전남도당 위원장에서는 재선의 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선출됐다.

4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3.61%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14.56%, 김지수 후보는 1.82%를 득표했다.

이어 이날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이어진 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득표율 82.4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15.66%, 김지수 후보는 1.87%를 얻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3일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4.79%를 기록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북 경선에서 13.32%, 김지수 후보는 1.89%를 득표했다.

4일 현재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6.97%로 집계됐다. 김두관 후보는 광주 14.56%, 전남 15.66% 등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10% 중반대를 얻으며 누적 득표율도 11.49%로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다. 김지수 후보는 광주 1.82%, 전남 1.87%를 각각 득표해 누적 1.55%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북 경선에서 90%대 지지율이 무너졌지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은 '호남 대전'을 통해 요동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민형배 의원이 '덧발'인 광주·전남에서 1위를 기록하며 반등에 나

섰고, 전주 태생인 한준호 후보도 고향 전북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순위표 변동을 이끌었다. 광주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민형배(27.77%), 김민석(17.42%), 한준호(11.67%), 정봉주(11.58%), 전현희(10.73%), 이연주(9.04%), 김병주(8.31%), 강선우(3.48%)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경선 관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25.29%로 저조했다.

또 전남 경선에서도 민 의원은 21.68%로 1위를 차지했고, 김민석 17.38%, 한준호 12.51%, 정봉주 12.12%, 전현희 11.95%, 이연주 10.59%, 김병주 9.66%, 강선우 4.11% 순이었다.

전북 경선에서는 한준호(21.27%), 김민석(19.00%), 정봉주(13.25%), 전현희(13.04%), 이연주(10.79%), 김병주(10.12%), 민형배(7.73%), 강선우(4.80%)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17.58%, 정봉주 15.61%, 한준호 13.81%, 전현희 12.59%, 민형배 12.31%, 김병주 11.82%, 이연주 11.17%, 강선우 5.12% 순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광주와 전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며 누적 득표율 5위로 뛰어 오르면서 광주·전남 유일 국회의원 출신의 최고위원 배출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11일 대전·세종, 17일 서울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한편, 이날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정기 당원대회에서 양부남 의원이 65.8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득표율 34.15%에 그친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누르고 자기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전남도당도 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주철현 의원이 권리당상으로 한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80.77%의 찬성으로 임기 2년의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전남도당은 이날 나주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와 함께 제1차 전남도당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주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주철현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과 체계적인 선거지원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한편,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으로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女풍당당' 올림픽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안세영이 인도네시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투중을 꺾고 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궁 남수현



복싱 임애지



펜싱 최세빈



배드민턴 정나은

남수현·임애지·최세빈·정나은 등 광주·전남 여자 선수들 잇따라 메달 수확

반환점을 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의 '여성 파워'가 빛났다. <관련기사 18면> 양궁 남수현(순천시청)은 단체전 10연패에 이어 개인전 메달까지 목에 걸었고, 임애지(화순군청)는 한국 여자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등극했다. 펜싱 최세빈(전남도청)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배드민턴에는 나주의 자랑 '세계 1위' 안세영과 혼합복식 16년 만의 은메달리스트 정나은(화순군청)이 있었다. 여자 양궁 대표팀 '막내' 남수현은 첫 올림픽 무대에서 단체전 10연패를 합작했고, 개인전 은메달까지 획득했다.

남수현은 지난 3일 개최국 프랑스의 리자 바벨랭과의 4강전에서 6-0 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임시현(한국체대)과 '집안싸움'을 벌인 남수현은 개인전 은메달리스트가 됐다. 앞서 남수현은 지난달 29일 임시현, 전현영(인천시청)과 함께 나선 여자 양궁 단체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며 역사적인 단체전 10연패 기록에 이름을 남겼다. 빠른 발놀림이 장점인 '아웃복서' 임애지는 지

난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복싱 역사를 새로 썼다.

화순군청에서 뛰고 있는 임애지는 지난 1일 복싱 여자 54kg급 8강전에서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에게 3-2로 판정승을 거두면서, 한국 여자 복싱 첫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복싱 중에서는 준결승만 진출해도 동메달이 주어짐에 따라 임애지는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된 셈이다. 올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복싱 메달은 2012 런던 올림픽 한승철(남자 60kg급 은메달) 이후 12년 만이다.

파리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아쉽게 4위를 기록한 최세빈은 단체전 은메달로 아쉬움을 달랬다.

최세빈은 윤지수·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 중구청)와 출전한 여자 사브르 단체전 4강에서 중국이자 개최국 프랑스를 상대로 45-36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한국은 4일 진행된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에서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쉽게도 은메달에 만족했다.

배드민턴에서도 '여성 파워'가 눈에 띈다. 이번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 출전한 정나은은 김원호(삼성생명)와 짝진 은메달을 합작했

다. 결승전에서 중국의 정쓰웨이·황아중(세계 1위)에 0-2로 패했지만 정나은은 2008 베이징 대회(이용대·이효정 금메달) 이후 16년 만의 혼합복식 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은 올림픽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다.

안세영은 4일 열린 대회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세계 8위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투중(인도네시아)을 2-1(11-21 21-13 21-16)로 누르고, 1996년 애틀랜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행을 이뤘다.

안세영은 5일 오후 4시 45분 결승 상대로 예상됐던 천위페이(중국)를 준결승전에서 꺾은 허빙자오(중국)와 금메달을 놓고 다툰다.

올림픽 후반에는 남자 선수단의 도전이 이어진다. 6일 광주 스포츠타운 신은철(더할)이 남자 스피드 경기 예선에 출전해 압박 위 속도 경쟁을 펼친다. 한국에서 8년 만에 올림픽 육상 세단뛰기에 출전하는 곡성출신 김장우(국군체육부대)는 오는 8일 예선을 치른다.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승태(광주시청)와 영암출신 서창완(국군체육부대)도 8일부터 시작되는 근대5종 경기에서 동반 입장을 목표로 달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가축 피해 잇따라 ▶6면
김민재의 원헌, 손흥민의 토트넘 꺾었다 ▶19면
호남의 농정 원림 - 전남 화순 송석정 ▶22면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